



시대와 지역을 넘어선 다양한 색깔의 음악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다양한 색채를 품은 세 편의 작품으로 감각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7월25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307회 정기연주회 'Brilliant Colours'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선 서로 다른 문화에서 비롯된 세 작품이 음악이 시·공간을 넘어 감각과 정서를 울리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예술감독 이병욱의 지휘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의 협연으로, 한 여름밤을 화려한 음악 색채로 물들일 예정이다.

연주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서곡으로 문을 연다. 열정적인 집시 여인 카르멘의 비극인 사랑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선명한 리듬과 강렬한 선율로 지금까지도 세계 무대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서곡은 오페라의 주요 동기들을 응축해 생동감 넘치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작부터 청중의 몰입을 이끈다.

이어지는 곡은 에두아르드 라로의 '스페인 교향곡'이다. 바이올린 협주곡 형식을 빌려 작곡된 이 작품은 화려한 기교와 민속적인 리듬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프랑수아의 시선으로 구현된 스페인의 정열과 우아함이 공존하며, 5악장이라는 실험적인 구성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 협연 무대 오페라 카르멘 서곡·스페인 교향곡 등



과 리드미컬한 선율이 인상적이다.

협연자로 나서는 이수빈은 섬세하면서도 개성 있는 해석으로 이국적 분위기를 무대 위에 펼쳐낼 예정이다. 그는 만 4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서울시향, 부산시향, KBS교향악단 등과 협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메뉴인, 인디애나 폴리스, 몬트리올 국제콩쿠르를 비롯한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2013년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바이올린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024-2025 시즌에는 LA 필하모닉 '그린 엄브렐라 콘서트' 및 플로리다 포트 마이애스에서 의 비발디 '사계' 전곡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앞두고 있다.

후반부에는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라벨의 관현악 편곡 버전으로 연주된다. 무소르스키가 친구 하르트만의 유작 전시회에서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만든 피아노곡을 라벨이 관현악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라벨은 이를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재해석해 색채와 역동성을 극대화했다. 각 악장은 회화에서 음악으로, 다시 무대 위의 사운드로 확장되며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놀재 박상, 시대의 기억과 현대적 지향’

한국학호남진흥원 학술대회 오늘 서구청 들불홀서 개최

16세기 호남 시단의 종장 놀재 박상의 삶과 학문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26일 오후 1시30분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놀재 박상, 시대의 기억과 현대적 지향'을 주제로 제8회 호남문화심층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놀재 박상(朴祥, 1474-1530)은 자연을 노래한

시와 백성을 향한 애정을 담은 사회시를 남기며 조선시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 인물이다. 문학적 업적은 물론 교육 활동과 청렴한 삶의 자세로도 높이 평가받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출간을 앞둔 '놀재집' 국역본을 기념해 마련됐다. 박상이 추구한 삶과 학문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관련 문헌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학술대회는 1부 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박명희(전남대) '놀재 박상의 가족 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 ▲정하정(계명대) '놀재 박상의 충절에 대한 기억과 상징화', ▲김광명(성균관대)이 '놀재집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신중(전남대)을 좌장으로 강동석(한국학호남진흥원), 강성규(고려대), 정인서(광주 서구문화원)가 토론자로 나선다.

홍영기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16세기 호남 시대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국역 자료를 활용한 문화원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호남 국학 자료의 가치를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지역미술 미래’…제31회 광주미술상 청년작가 공모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27일까지 접수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가 '제31회 광주미술상' 창작지원 대상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 공모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1천만원 규모의 창작지원금과 개인전 개최 기회가 주어진다.

‘광주미술상’은 지역 원로·중견 미술인들이 역량 있는 청년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5년부터 이어온 창작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작가 개인전 개최를 통해 지역미술의 미래를 복돋우고, 다음 세대 미술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취지다.

공모 대상은 광주·전남에 연고가 있는 만 2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작가 또는 단체다. 지원 자격은 ▲광주·전남 출생자 ▲광주·전남 소재 미술 관련학과 졸업자 ▲지역 거주 및 활동 5년 이상 작가 등이며, 최근 5년 이내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응모는 이메일(gj-art@naver.com) 접수로 진행되며 응모원서와 포트폴리오(PDF형식),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작가 소개, 작품 세계, 개인전 기획안을 포함해 5쪽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전시도록과 포트폴리오 실물은 별도로 우편 또는 사무국 방문을 통해 제출한다.

심사는 서류 적격 심사(6월28일)를 거쳐 1차 포트폴리오 심사(6월30일)로 3배수 후보를 선정하며, 당일 본심사에서 후보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1인을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작가에게는 창작활동비, 도록 제작비, 전시 홍보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작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며 전시 공간과 '작가와 대화'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지원된다. 초대 개인전은 오는 12월 예술의거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빛과 그림자 입힌 판소리 인형극 ‘와그르르 수궁가’

27-29일 ACC 어린이극장

창의적으로 재해석된 전통의 빛과 그림자가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어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ACC 어린이극장에서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와그르르 수궁가'를 선보인다.

'ACC난생처음 시리즈' 일환인 '와그르르 수궁가'는 전통문화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된 참여형 공연이다.

어린이들이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판소리 구절을 알기 쉬운 말로 바꿨다.

장단도 단순하게 구성해 어린이 관객이 소리꾼과 함께 호흡하며 추임새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민화, 산수화, 궁중 장식화 '일월오봉도' 등 전통 문양과 탈춤 속 사자 가면 등을 재현용품으로 만든 인형이 무대 위 그림자로 펼쳐지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과 연계한 체험 행사로 '공연별책부록 그림자 세상 속으로'도 운영한다.

'공연별책부록'에서는 놀이를 통해 빛과 그림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만든 그림자 인형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와그르르 수궁가'는 27일 오전 11시, 28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9일 오후 2시 등 총 4회 진행된다. 관람료는 1만5천원이며, 27일 공연은 1만원으로 특별 할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CBS
Media Group™